

5. 거듭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꼽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도 다 그려하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런 ‘만남’입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꼽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지식의 한계’ 혹은 ‘지식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자기 확신’으로 자리 잡는 순간, 지식을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성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의회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그들의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전도를 하다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의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죠.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ointing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까요?

4 복음서에는 소위 말하는 ‘평행본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후에 꼭 메시지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표적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잠시 황홀한 경험을 할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현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혼다한 무리들이 사라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기사와 이적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 예수님께 열광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채워질 때를 기다리며 따라다녀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잠시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만족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필요와 욕망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만족을 모르고 더 큰 돈의 욕심을 내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얼마나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조금 만 더’였다고 하죠.

늘 조금만 더 필요하니 얼마나 갈급합니까? ‘욕망’의 정체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욕망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상과 현상’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종교에 현혹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표적들은 더 많은 욕망덩어리들을 만들어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거듭남’을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한 1서 2장 16-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위로부터의 사고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사람이 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세례는 흐르는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이었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옛 자아가 죽고, 동시에 밖으로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너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 둘로 갈라졌던 물기둥이 합쳐집니다. 옛 사람을 다 물에 묻어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새사람이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징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채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우리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세계관을 가져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의로운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혼들립니다.

흔히 ‘긴가민가’라는 말을 쓰는데, ‘기연가미연가(其然-未然-)’라는 한자에서 유래한 말이죠.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헷갈릴 때 쓰는 말입니다.

알기는 하는 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혼들립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홍해를 건너기는 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가슴에 새겨졌지만 왜 홍해가 갈라지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홍해의 사건을 알고 있었으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죄를 짓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나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우상숭배를 하다니요.

우상숭배는 참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육신의 욕망을 채워 주리라 생각하는 허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옛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돈 앞에서 신앙도 자존심도 버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세상적 사고를 가지니, 그렇게 권력을 쟁취하려고 싸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세상과 똑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 vs.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지식적 신앙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니 말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요?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먼저 간단하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본문 1절에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통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약 6천명 이채 안 되는 엘리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철전하게 준수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더 대단한 것은 니고데모가 유대의 국회 격인 산헤드린(Sanhedrin)의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70인 의회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또한 요 19: 39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을 갖춘 갑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호기심은 있으나, 그로 인해 자신의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 생각, 혹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지만 아직 제자로서 따르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니고데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밤'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율법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밤'은 니고데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으니,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로도 하듯이, 요한복음 7장 50-5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으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유대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필요의 해결자'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초자연적인 일’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은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무속인들도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닉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보고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쉽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표적은 보이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닉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아주 흥미롭죠?

닉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 이까

닉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이 ‘anothen’을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철저하게’--‘from the beginning, completely radically’--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로, 다시’--‘for the second time, again’--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from above, from God’--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닉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듭남은 두 번째 개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는 거듭남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거듭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반면에 영으로 난 것은 영적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므로 육신의 소욕과 싸우며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죄의 고백’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으므로 과거와의 삶이 단절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죄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체험이고, 신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경험하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8절을 보겠습니다.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높롭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도 다 그려하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신비입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희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고백은 세례의 기쁨을 다시금 맛보게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혹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죄를 우리 자신에게 고백한 후, 스스로 용서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에 빠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 힘이 없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용서에 근거해서 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기용서는 결코 죄와의 단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세속적 욕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표적을 바라보며 욕망을 채워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해를 건너, 더 이상 옛 삶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